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안성*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7. 7. 22(토)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파견대학의 위치는 시내와 가까워서 좋았으며, 규모 나 시설은 아주 깔끔하고 필리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보안도 철저했으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어 보였으며, 다른 현지 필리핀 학생들도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파견 온 학생들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내용은 대부분이 만족스러웠으며 특히 1대1 수업은 한국에서 접하지 못한 교육 방식이므로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분반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하한 면이 있었다.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토익이 아니지만 토익시험을 시작과 끝에 배치한 이유를 모를 정도로 무의미한 분반 이었다. 강사들은 대부분 열의가 넘쳤으며 준비성도 좋았다. 과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마다 틀리지만 공통과제인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은 활용도가 높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관련 액티비티는 대부분 만족스러웠으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민도로 섬에 가는 데만 12시간이 걸린 건 정말 힘들었고, 비용은 다른학교와 다르게 학교에서 지불해 주어서 너무 좋았으며, 다른 대학교와 차별화 되는 느낌을 받아서 매우 만족스러웠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현지 기후는 굉장히 덥지만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올때만 습하고 아닌 날에는 바람도 불고 해가 떨어지면 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학교 근처는 안전한 편인 것 같았으며, 다른 시내는 총기검사 및 마약검사를 강화해서 하는 편이지만 한국인들은 더 특히나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의 시설은 굉장히 좋았으나, 가끔 벌레(개미, 바퀴벌레, 모기)가 출몰하였으며, 샤워기의 수압이 약해서 샤워를 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 그리고 에어컨이 시원하기는 하나 노후 되어서 안쪽에서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사는 주로 숙소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너무 한국적으로 나와서 조금 당황했지만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많은 학생으로 인하여 더 먹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과 현지음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숙소 바로 앞이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갈 때 교통은 아주 최상이었으나, 시내에 나갈 때는 택시나 지프니, 트라이시클 보다는 안전한 그랩을 불러서 가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기숙사보증금, 여행자보험	688,710	출국 전 사전 납부
민도로 액티비티	80,000	바나나보트 등 활동
식비 및 외식	200,000	주말 간 시내 및 수업 후 음료 구입
기념품	50,000	의류 및 간식 등 기념품 구입
합계	32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파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돈을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달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페소도 조금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착당시에 페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숙소 바로 옆 편의점은 카드와 달러가 사용이 불가함으로 페소를 조금이나마 바꿔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업 때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므로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수품들은 정말 소량만 챙겨 오시고 나머지는 도착 후 2틀 안에 큰 마트에 가기 때문에 짐만 무겁게 많이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셔도 어느새 인가 즐겁게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즐기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30만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남자는 충분히 놀 수 있고, 여자는 50만 원 정도면 사고 싶은 것들 다 사실 수 있을 겁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토익을 응시했으며 9월안에 토익 스피킹 시험도 볼 예정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교육은 1대1 이며 이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었으며, 선생님들과 친해지면 카톡도 하면서 자신이 궁금했던 것이나 수업이외의 질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가기 전 에는 한명도 친하지 않았는데, 간 이후로 학우들과도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평소 인맥이나 이런 다양한 과 친구들이 없다면 혼자 지원을 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마지막 수업때 다같이(SGC)



Seafood Market 탐방



졸업식



Green Hills 탐방



마닐라 투어때 갔었던 공원



민도로 섬 해변가